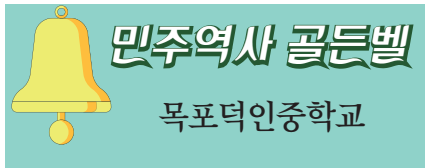


5·18 관련 목포의 역사적 사건·인물 문제 '강세'



탈락 학생들 패자부활전 준비 "목포 역사는 잘 알죠" 자신감 열띤 응원에 수상자 5명 탄생 대상 장하준군 "열심히 한 덕분"

"친구야, 내 뒤통까지 파이팅!"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바이벌 퀴즈에 도전해 우승자를 가리는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가 목포덕인중학교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마무리됐다.

16일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주최·주관한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이 목포정명여중에 이어 목포덕인중 우정관에서 펼쳐졌다.

민주역사 골든벨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퀴즈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중 전남일보 사법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와 폭력에 맞서 싸웠던 항쟁으로,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저항과 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밑거름이 됐다"며 "오늘 골든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윤성 목포덕인중 교장도 "뜻깊은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준 전남서부보훈지청과 전남일보에 감사하다"며 "이번 민주역사 골든벨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길 바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주최·주관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민주역사 골든벨이 16일 목포덕인중학교 우정관에서 열린 가운데 목포덕인중 3학년 학생 15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란다"고 이야기했다. 목포덕인중 3학년 학생 149명의 우렁찬 함성 속에서 시작된 골든벨은 양홍석 여수와 교사의 진행으로 막을 열었다.

'OX'로 치러진 예선부터 정답과 오답을 쓴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2·12사태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은 자신있게 정답인 O를 화이트보드에 그려 뽐낼기를 했다. 그러나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집회 시위가 계속됐는지를 묻는 두 번째 문제에서 대거 탈락하며 아쉬움의 탄성이 강당을 채웠다. 그러나 탈락자들은 다가오는 패자부활전을 위해 열심히 책을 뒤져가며 학구열을 불태웠다.

예선에서는 총 5번의 문제를 치르거나 서야 본선 진출자 16명이 확정됐다. 본선

행 티켓을 따놓은 학생들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단상에서 패자부활전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패자부활전에서 1979년 10·26사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1980년까지 이어져 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집회가 계속됐는데 이 시기 민주화의 열망을 지칭한 말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탈락자석에 있던 학생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잠깐 망설이다가 싶더니 답을 떠올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어 출제자에게 귓속말로 답을 속삭였다.

정답인 '서울의 봄'을 맞춘 학생들은 본선 진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오답을 이야기한 학생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탈락자석에 들어갔다. 이로써 총 61명의 목포덕인중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과 달리 단답형으로 진행된 본선에서는 예상외의 접전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특히 목포의 5·18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연합회장 및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장을 맡아 1970-80년대 목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며 목포의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학생들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안철'을 써냈고, 안철 선생이 운영했던 약국의 이름(동약국)을 묻는 문항에서도 거리낌없이 답을 쓰면서 높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5·18 당시 광주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발간하고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해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5월 27일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열사(윤

상원)를 묻는 고난도 문제에서 1등이 가려졌다.

연이어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며 총 5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수상 학생은 △대상 장하준군 △최우수상 최여준군 △우수상 김태인군 △장려상 김지웅·임재형군으로, 상품으로는 문화상품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됐다.

이날 목포덕인중의 민주역사 골든벨을 올린 대상 수상자 장하준군은 "오픈북이지만 골든벨 전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한 덕에 1등을 거머쥐게 됐다"며 "이번에 공부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뿌듯했고 수상을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제44주년 5·18 기념행사 막 오른다

대행진·풍물굿 등 전야행사 풍부 18일 기념식에 2500여 명 참석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전야행사와 기념식이 열린다.

16일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17일 펼쳐지는 올해 5·18 전야행사는 △해방광주 △오월길맞이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등 크게 4개의 행사로 구성된다. (포스터)

우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1·2·3가(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방광주'가 진행된다.

홍보·체험 활동부스 30개, 전시와 설치 공간 5곳 그리고 2곳의 무대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월길맞이'에서는 518명의 풍물단과 시민악사들이 민중운동의 신념과 염원을 표출하는 풍물굿을 선보인다. 풍물단은 전야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연주하며 5·18민주광장 분수대 주변과 금남로공원에 등장해 다른 연주자 및 시민들과 함께 협연을 이어간다.

1980년 5월 가두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은 오후 5시30분~6시까지 광주공원과 북동 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로 모인다.



행진에는 5·18 유족, 제4·3, 여순, 대구2·28, 세월호·이태원 유족 및 각 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오후 7시에는 전야제가 본격 시작된다.

각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18일 오전 10시에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정부 기념식이 개최된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월, 희망이 꽃피다'로,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5·18 유족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시민 2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빈입장 및 개식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이 끝나면 정부 인사들이 희생자 묘에 참배하며 오월영령의 넋을 기린다.

강주비 기자

배우 김의성 "10·26사태 없었다면 광주 학살도 없었을 것"

국제학술대회 패널로 참석 "5·18은 자랑스러운 역사"

"5·18민주화운동을 알게 돼 받은 충격이 내 삶을 관통했어요."

'서울의 봄', '부산행' 등에 출연한 김의성 배우는 16일 제44주년 5·18기념 국제학술대회 개회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배우는 5·18민주화운동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평소 신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5·18를 광주 폭동으로 왜곡한 정보를 접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대학교를 재학하며 광주 현장 사진, 영상을 통해 당시 참혹했던 광주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세대에겐 삶을 관통한 가장 큰 사건이 5·18"이라며 "직접적 연관이 없고 광주에 연고가 없더라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봄'에서 관객의 원성을 산악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는 '실제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거냐?'는 질문에 "아마 비슷하게 대처했을 것"이라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쁜 편에 가담하진 않았겠지만, 겁이 많은 성격이라 사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면 대세를 따랐을 것"이라고 말



광주 동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16일 영화 '서울의봄'에 출연한 김의성 배우가 발언하고 있다.

했다.

김 배우는 군부 쿠데타 당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란 인상"이었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그 하루 사이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걸 깨달으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가 맡았던 역할 또한 그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영화를 찍으면서도 송구한 마음이었다"며 "그때 군부 쿠데타가 없었다면 광주에서 그런 학살도 자행되지 않았을 거다"고 덧붙였다.

선한 배역을 맡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를 맡고 싶냐는 질문에는 5·18 당

시 광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택시운전사" 등의 영화는 오월광주의 한 부분만 다룬 작품"이라면서 "광주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폭 넓게 다루는 영화가 꼭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젊었더라면 시민군 역을 해보고 싶었겠지만, 이전 아버지나 할아버지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시민 중 한 사람 역을 맡을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다"고 웃었다.

김 배우는 5·18민주화운동이 아픈 과거와 현대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게 한 '역사의 높은 봉우리'로 남길 바랐다.

그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5·18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로 기억됐으면 한다"며 "아픈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 마련이다. 당시 희생된 수많은 열사분들을 추모하되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투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배우는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배우이자 시민의 목소리로 듣는 서울의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참가했다. 영화 '서울의봄' 제작 성과를 설명하고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글·사진=박찬 수습기자